

# “창업사업화 자금 지원해 드립니다”

### 중기부, 청년 예비창업자 모집... 최대 1억 원 지원

전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청장 김광재)은 중소벤처기업부가 예비창업패키지사업(4차 산업혁명·소셜벤처 분야)에 참여한 청년 예비창업자를 5월 7일까지 모집한다고 12일 밝혔다. 예비창업패키지는 혁신적인 기술 창업 소재가 있는 만 39세 이하의 청년

예비창업자의 원활한 창업사업화를 위하여 사업화자금과 교육, 멘토링 등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이번에 진행되는 2차모집은 청년 예비창업자를 대상으로 4차 산업혁명 분야는 17개 주관기관에서 400명, 소셜벤처 분야는 기술보증기금에서 100명을

선발하며, 전북은 주관기관으로 한국탄소융합기술원이 선정되어 신소재분야를 지원한다. 예비창업자가 적합한 업종의 주관기관을 지정하여 신청하면, 지원예산 범위 내에서 최종선정하고 협약일로부터 10개월간 창업교육, 사업화자금과 전담멘토를 지원한다. 전북중기청 김광재 청장은 “이 사업을 통해 기술창업 아이템만 가지고 첫 걸음을 떼는 청년 예비창업자에게 큰

힘이 될 것으로 기대되며, 더 나아가 도내 창업생태계 조성에도 이바지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신청을 희망하는 청년예비창업자는 5월 7일 오후 6시까지 k-스타트업 누리집(www.k-startup.go.kr)에서 온라인으로 사업 신청을 해야 하며, 공고문과 3개 지역에서 개최하는 사업설명회에서 자세한 사항을 확인할 수 있다. /김영태 기자

## 귀농 창업자의 조기 영농정착 적극 지원

### 농신보 정읍권역보증센터, 청장년 귀농인 창업 신용보증 교육 실시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기금 정읍권역보증센터(이하 농신보정읍센터, 지점장 정수조)는 지난 11일 부안군 농업기술센터에서 귀농(어)인들의 창업자금 보증지원을 위한 신용보증 교육을 했다고 12일 밝혔다.

보증료율을 0.2% 차감 적용하며, 1억 원까지 위탁금융기관에서 간이신용조사 심사를 통해 신속한 보증지원이 가능하다.

부안군 농업기술센터에서 실시된 금차 교육은 예비 귀농(어)인을 포함한 귀농·귀촌에 관심있는 100여명이 참석했으며, 신용보증 한도·이용방법 및 보증이용절차 등 1시간여 동안 실질적인 교육 내용 중심으로 진행됐고 교육 후 질의응답 시간을 통해 귀농(어)인들과의 소통의 시간도 함께 가졌다.

정수조 지점장은 “농신보는 담보능력 미약한 농림수산업자 등의 신용을 보증함으로써 농림수산업에 필요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기금 정읍권역보증센터가 지난 11일 부안군 농업기술센터에서 귀농(어)인들의 창업자금 보증지원을 위한 신용보증 교육을 실시했다.

한 소요자금을 원활하게 마련할 수 있게 도와주는 공신력 있는 보증기관이다”며, “올해 농신보 보증지원을 위해 농어업인 보증대상자 지속 발굴과

더불어 귀농(어) 창업자의 조기 영농정착 보증도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김영태 기자

## ‘유류세 인하’ 낙달 더 연장... 인하폭은 ‘15→7%’ 축소

다음달 6일로 끝나는 한시적 유류세 인하 조치가 낙달 더 연장돼 8월 말까지 시행된다.

이렇게 축소된 인하폭이 적용되는 다음달 7일부터 휘발유는 65원, 경유는 46원, LPG부탄은 16원씩 오르게 된다.

다만 인하폭은 종전 15%에서 절반 수준인 7%로 축소된다. 단번에 세율을 인상할 경우 시장의 충격을 감안해 단계적으로 되돌리겠다는 것이 정부 계획이다.

한 번에 원상복귀시켰을 경우와 비교하면 휘발유 1(리터)당 58원, 경유 41원, LPG부탄 14원씩 가격인하 효과가 나타난다.

이호승 기획재정부 1차관은 지난 1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이같은 내용의 ‘유류세 단계적 환원방안’을 발표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해 11월부터 휘발유·경유·액화석유가스(LPG)부탄에 대해 탄력세율 15% 인하 조치를 6개월간 한시적으로 적용해왔다.

정부는 이번 조치로 낙달 간 약 6000억원의 유류세 부담 경감 효과를 볼 것이라고 밝혔다.

당초 정부는 6개월간 유류세 한시 인하 조치로 2조원 가량의 감세 효과를 추산한 바 있다. 이 차관은 유류세 인하 조치의 경제효과에 대해 “2조원

만큼의 자금이 소비자나 생산자 등 국민들에게 간 것”이라며 “그만큼 가계나 기업의 지출여력으로 남는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또 “유류 소비량이 예년의 2%에서 지난 5개월간 5~8% 정도까지 늘었다”며 그만큼 가계의 소비와 기업의 생산 등 경제활등을 더 했다고 볼 수 있다”고 밝혔다.

이 차관은 이어 “9월1일(시)부터 전면 원상복귀하는 걸 원칙으로 하되 경제상황의 급격한 변화가 있을 수 있어 종합적인 고려를 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한편 정부는 이번 유류세 일부 환원

조치 이후 가격인상을 이용한 매점매석 현상이 나타날 수 있어 이를 금지하는 고시를 이날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석유정제업자 등에 대해서 다음달 6일까지와 8월1일~31일 사이에 한시적으로 휘발유·경유·LPG부탄 반출량 제한 조치를 실시할 예정이다.

또 정당한 사유없이 판매를 기피하거나 특정 업체에 과다 반출하는 행위가 적발되면 물가안정법에 따라 조치할 계획이다.

기재부는 향후 후속조치로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시행령,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오늘부터 입법예고하고 차관회의, 국무회의 등을 거쳐 내달 7일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뉴시스

## LX,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과 감사품질 향상 협약

한국국토정보공사(LX, 상임감사 류근태),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상임감사 임동욱)은 지난 12일 전북혁신도시 LX 본사에서 상임감사와 감사실장

이 참석한 가운데 최근 사회에 화두가 되고 있는 안전관련 감사 품질향상을 위한 업무 협약식을 했다고 밝혔다.

반부패, 청렴, 사회기치실현과 감사업무관련 유기적 협업 체계 구축을 목적으로 하는 협약은, 공공기관 특성에 적합한 감사관련 기법과 정보의 상호 공유를 주요내용으로 했다.

이번 협약에 따라 양 기관은 감사인력 풀(Pool) 공동구성, 감사 활동 관

련 우수 수범사례 공유 등 적극적으로 감사 인프라를 공유하게 된다.

또한, THE 안전한 일터 조성에 따른 안전관리 체계 구축과 청렴 시너지효과 극대화를 위한 지속적인 상호협력도 약속했다. /김영태 기자

## 여행지 고민 말고 타이베이로~

### 이스타항공, 지방발 타이베이 노선 경쟁력 강화

이스타항공이 지방발 타이베이 노선을 추가로 배정하고 고객 선호시간대로 출발 시간을 조정하는 등 지방발 타이베이 노선에 대한 경쟁력 확보에 나섰다.



이스타항공은 11일부터 제주-타이베이 노선의 5, 6월 추가 스케줄에 대한 항공권 오픈을 공지하고 판매를 시작했다.

제주-타이베이 노선은 기존 주 2회(월, 금)에서 2회(수, 일) 추가 편성해 운항하게 된다.

이와 함께 하계시즌이 시작된 3월 31일부터는 청주-타이베이 노선을 주 3회에서 4회로 증편하고 기존 2시 50분, 23시 50분 출발시간을 승객이 선호하는 오후 14시 35분, 16시 30분대로 옮겨 운항하고 있다.

이스타항공은 지속적인 수요가 있는 타이베이 노선의 지방발 스케줄을 증편, 조정하며 지방공항을 통한 노선 확대에 집중할 계획이다.

지방발 타이베이 노선의 운임을 인천/김포 노선 대비 30~40% 저렴하게 책정하고 합입운임 비중을 높

여 고객 선택권을 높이고 있다.

이스타항공은 현재 인천과 김포, 청주, 제주에서 타이베이 노선을 주당 총 15회 운항하고 있다. 타이베이 노선은 비행시간이 2시간 30분 내외로 짧고, 인천과 김포 노선의 경우 평균 탑승률이 88% 이상이며 성수기 탑승률은 90% 이상 기록하는 등 안정적인 인기노선이다.

이스타항공 문준배 부사장은 “청주공항의 경우 경기도권에서 차량으로 이동시 인천공항보다도 접근성이 좋아 항공여행을 준비하는 고객들에게 좋은 선택의 기회가 될 것”이며, “주요 노선간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지방발 항공권에 대한 경쟁력 확보를 강화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김영태 기자

## 전북농협, 도내 전 영업점 ‘미세먼지 쉼터’ 운영

농협은행 전북본부(본부장 김장근)은 연일 계속되는 초미세먼지 여파로 야외 활동에 대한 불안감이 고조되는 가운데, 농협은행 도내 전 영업점에서 고객과 도민들이 잠시나마 편하게 쉬 수 있는 쾌적한 환경을 제공하고자 공기청정기를 설치하여 ‘미세먼지 쉼터’로 운영한다고 12일 밝혔다.

농협은행 전북본부(본부장 김장근)는 연일 계속되는 초미세먼지 여파로 야외 활동에 대한 불안감이 고조되는 가운데, 농협은행 도내 전 영업점에서 고객과 도민들이 잠시나마 편하게 쉬 수 있는 쾌적한 환경을 제공하고자 공기청정기를 설치하여 ‘미세먼지 쉼터’로 운영한다고 12일 밝혔다.

농협은행 전북본부는 지난해 여름철에는 무더위에 지친 고객들에게 시원한 생수를 나누어주는 무더위 쉼터를, 한겨울에는 핫 팩을 나누어 주는 등 사시사철 고객 중심 서비스 제공에

앞장서고 있다. 농협은행은 전북 관내 모든 시·군에 영업점을 운영하고 있어 도민들이 언제, 어디서든 쉬 수 있는 쉼터로서의 역할을 다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김장근 본부장은 “유례없는 미세먼지 여파로 지친 도민, 고객 모두가 농협은행에서 활력을 찾아 건강한 봄철을 보내기를 희망한다”며, “고객에게 귀 기울이고 언제나 찾아올 수 있는 든든한 느티나무와 같은 은행이 되겠다”고 말했다. /김영태 기자

## 전북개발공사, 소외·학대가정 모항 객실 기부

전북개발공사(사장 김천환)에서 운영 중인 모항해나루 가족호텔은 부안군 내 사회적약자, 소외계층, 학대 및 폭력 가정을 대상으로 매월 호텔 이용기회를 제공하여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고 있다.

전북개발공사(사장 김천환)에서 운영 중인 모항해나루 가족호텔은 부안군 내 사회적약자, 소외계층, 학대 및 폭력 가정을 대상으로 매월 호텔 이용기회를 제공하여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고 있다.

공사 및 호텔은 전년도 다문화가정(3가족) 객실기부 시범운영을 실시하였고, 올해부터는 부안군 및 부안경찰서로부터 다문화, 편부모, 장애우 가정 및 가정폭력, 아동학대 가정 대상

자를 받아 객실 및 당일식식, 익일조식 등을 지원하고 있다. 김천환 사장은 “연 100여명의 소외계층, 사회적약자에게 모항호텔 체험을 통해 쉽고 치유의 기회를 제공하고 도민의 공기업으로서 지역사회 상생을 실현할 것이며, 부안군 및 부안경찰서와도 지역내 공공부우체 협업 체계를 지속적으로 유지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영태 기자

**지구상에서 가장 빨리 뜨거워지고 있는 곳 '북극'**

# 우리집을 지켜주세요

전문가에 따르면 자동차와 공장에서 나오는 탄소 배출량 증가로 인한 지구 온난화로 빙하들은 점점 녹고 있으며, 이는 지구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다. 해양 얼음의 손실은 지구가 태양 광선을 효율적으로 반사하지 못한다는 것을 의미하고, 결국 지구 온도의 상승을 초래할 것이기 때문이다.

전주매일 지구온난화 캠페인